

《譯語類解》의 俗音·或音 考察*

李 春 永**

〈目 次〉

I. 들어가는 말	4. 俗音·俗呼·或曰·又音·일부 或呼
II. 《譯語類解》의 전용 서술어	5. 기타
1. 通稱·俗稱·或稱	III. 《譯語類解》의 俗音·或音 분석
2. 或云·一云·一名과 일부 或呼	IV. 나오는 말
3. 或作·一作·亦作	

I. 들어가는 말

지리적 인접이라는 배경 하에 한중 양국은 고대부터 끊임없이 교류하며 많은 영향을 주고받았다. 양국이 역사적으로 빈번하게 교류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는 漢字라는 표기수단이다. 한자의 유입시기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각도에서 연구하고 있지만, 지리적 인접·儒學·佛敎의 유입만 고려해 봐도 매우 이른 시기부터 한중 양국이 다양한 교류를 했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 한반도 지역의 고대 국가는 중국과의 교류를 위해 漢字 筆談뿐만 아니라 중국 언어를 배우려는 노력도 지속해 왔다.

조선시대에는 중국과의 통교를 위해 중국어 학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중국어학습서를 편찬하였다. 특히 表音 기능을 갖춘 한글이 창제되면서 조

* 이 연구는 2017년도 영남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한 것임.

** 영남대학교 중국언어문화학과 교수

선시대 중국어학습서는 중국 어휘의 발음을 한글로 표기할 수 있게 되었다. 1883년 조선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이응헌(李應憲)이 燕京語[북경어]에서 사용되는 실용적인 말[常行實用之語]을 모아 만든 중국어 학습서 《華音啓蒙》의 윤태준(尹泰駿) 서(序)에는 「이전에 《老乞大》·《朴通事》·《譯語類解》 등의 서적이 있어 중국어를 배우는 데 사용되었다」는 기록이 있다.¹⁾ 《譯語類解》(1690)가 17세기 이후 조선에서 중국어 학습서로 널리 활용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老乞大》·《朴通事》는 元나라 燕京 지역의 口語를 기저로 삼아 편찬되었고, 이를 토대로 수정을 거쳐 《老乞大諺解》(1670)·《老乞大新譯》(1761) 및 《飜譯朴通事》(1517)·《朴通事諺解》(1677)·《朴通事新譯》(1765) 등이 편찬되었다. 조선시대 중국어 학습의 기본 대상은 「중국 북경어」임을 알 수 있다.

《譯語類解》(1690)가 중국어 학습에 활용되던 시기에 중국은 만주족이 세운 청(淸: 1645~1912)의 康熙帝시대였다. 중국 한어(漢語)의 어음변천사에서 중고(中古)와 현대를 잇는 과도기에 해당하는 당시 近代시기에는 중국어음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譯語類解》는 당시 중국어 어휘를 수록하고, 아래에 諺文으로 左右音 형식의 발음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右音은 당시 중국의 실제 발음을 표기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어 연구에 있어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左右音 외에도 중국어 어휘 해설부분에서 언급된 당시 중국의 다양한 발음내용은 음운학적인 각도에서 주목해야할 연구대상이다. 이 내용은 당시 중국 상용 口語 외의 민간에서 사용되고 존재했던 다양한 발음을 기록한 내용이다. 이 발음내용은 당시 중국 민간에서 구사되던 다양한 실제 언어내용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중국 漢語 어음 변천사를 연구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실마리가 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譯語類解》에서 表音 전용서술어로 수록된 당시의 俗音과 或音を 연구대상으로 삼고, 동시대 조선시대 중국어 회화책, 중국의 방언 및 어음변천 내용을 토대로 분석하

1) 李應憲, 《華音啓蒙·華音啓蒙序》(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舊有老乞大朴通事譯語類解. ~今李知樞應憲取常行實用之語, 畧加編輯, 名之曰華音啓蒙.”

여 17세기 중국어의 실제 언어내용과 한어 어음변천의 실마리를 정리하고자 한다.

II. 《譯語類解》의 전용 서술어

《譯語類解》에 수록한 중국어 어휘 해설 부분에는 다양한 表音 서술어가 나타난다. 각 서술어는 서술내용면에서 차이를 나타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通稱·俗稱·或稱

「通稱」은 해당 중국 어휘에 부합하는 한국 용어를 서술한다. 예를 들면, 「星」 아래에 「通稱별」이라 하였고, 「衚衕」 아래에 「通稱골」이라 하였다. 또한 「衙門」 아래에 「通稱마울」이라 하였다. 「俗稱」은 해당 중국어휘에 부합하는 한국 속어를 서술한다. 예를 들면, 「港汊」 아래에 「藏缸處, 俗稱개」라고 하였다. 한국 일부 지역에서 「개」는 「강이나 내에 바닷물이 드나드는 곳」을 가리킨다.

「或稱」은 해당 중국 어휘에 부합하는 한국 용어를 서술하고, 다시 대등하게 사용되는 다른 한국 용어를 언급할 때 쓰인다. 예를 들면, 「曲理木」 아래에 「박달나무」임을 언급하고, 다시 「或稱들미」라고 하였다.

《譯語類解》의 「通稱」·「俗稱」·「或稱」은 중국 어휘와 등가를 이루는 한국 어휘를 나열할 때 사용되는 용어임을 알 수 있다.

2. 或云·一云·一名과 일부 或呼

《譯語類解》의 「或呼」·「或云」·「一云」·「一名」은 중국 어휘의 중국 同義語를 서술한다. 或呼에 대한 예를 들면, 「礮石」 아래에 「或呼柱쥬項당石

시」라고 적고 있으며, 「烟洞」 아래에 「或呼烟연窓창」이라고 표기하였다. 또한 「或云」에 대한 예를 들면, 「翎箭」 아래에 「或云鯁뽕翎링」으로 표기하였다. 「一云」의 예로, 「鳥銃」 아래에 「一云鳥뽕槍창」이라고 표기하였고, 「布施」 아래에 「一云賑賑錢錢」이라 하였다. 「一名」의 예로, 「馬蘭草」 아래에 「一名假蘭」이라 하였다.

때로는 「或云」으로 한국 어휘를 덧붙여 서술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生的」 아래에 「얼굴」임을 설명하고 다시 「或云선것又늘것」이라 하였고, 「蝙蝠」 아래에 「뽕쥐」로 설명하고 「或云벼부」라고 하였다.

3. 或作·一作·亦作

중국 어휘의 다른 서술법을 나타내는 서술어에는 「或作」과 「一作」·「亦作」이 있다. 예를 들면, 「飴飴」 아래에 「飴或作胡후」라고 하였고, 「大媳婦」 아래에 「大一作長장」, 「小媳婦」 아래에 「小一作弟」라 하였다. 「曲窻窻尺창 치虫뽕충」 아래에 「一作曲曲虫」이라 하였고, 「噴誘」 아래에 「噴亦作哄」이라 하였다.

4. 俗音·俗呼·或曰·又·일부 或呼

《譯語類解》의 해설부분에 「俗音」·「俗呼」·「或曰」·「又」 등 서술어를 사용하여 상용음 이외의 당시 존재하던 다른 중국 어음을 서술하고 있다. 당시 조선에 있던 漢人의 조언을 토대로 만들어진 《譯語類解》에 나열된 「俗音」이나 「或音」에는 해당 중국인의 출신 지역 어음과 당시 상용 표준음 이외에 민간에서 발음되던 俗音이나 민간 口語에서 사용되던 又音이 포함되었을 것이다. 表音관련 서술어는 본고의 연구대상이므로 아래 장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5. 기타

그 밖에도 당시 중국의 방언을 나타내는 용어들이 나타난다. 예를 들면, 「山산산椿춘춘」 아래의 「北方人呼日山椿」, 「土투투猪쥬쥬」 아래의 「南話睡쉬貉貉」, 「寒한한居규규」 아래의 「山東人曰酒家」, 「頭뚱뚱口큁큁」 아래의 「閩內之話」, 「牲승승口큁큁」 아래의 「關東之話」, 「菊궁구花화화」 아래의 「菊方音或귀」 등이다. 이 용어들은 〈走獸〉·〈花草〉·〈樹木〉편에만 나타난다. 《譯語類解》의 각 장에 나타나는 서술어는 차이를 나타낸다. 《譯語類解》의 편찬에 여러 명의 편술자가 나뉘어 각 장을 담당했고, 〈走獸〉·〈花草〉·〈樹木〉편을 편술한 학자는 方言의 지역이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서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서술어 중 「俗音」·「俗呼」·「或曰」·「又音」·일부 「或呼」는 당시 중국의 속음이나 口語의 다양한 발음을 수록한 것이다. 당시 중국 어휘의 상용음 이외의 통용 어음을 수록한 내용이다. 이 자료들은 17세기 중국 漢語 어음 변화의 근거로서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譯語類解》에 나타나는 「俗音」·「俗呼」·「或曰」·「又音」 등의 表音내용 분석을 통해 17세기 중국 언어환경을 파악하고, 나아가 어음변천의 자료를 분석하고 정리하고자 한다.

Ⅲ. 《譯語類解》의 俗音·或音 분석

자의(字意)적으로 분석해 볼 때, 「俗音」와 「俗呼」는 「或曰」·「又~」·「或呼」에 비해 正音이나 대표음으로 인정되지 않는 느낌이 강하다. 「或曰」·「又~」·「或呼」의 어감은 대표음과 등가의 위치에 놓여있음을 표현한다. 그러나 《譯語類解》의 表音 서술어를 분석해보면, 하나의 글자에 대한 같은 又音에 대해서 표시 서술용어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俗音」·

「俗呼」과 「或曰」·「又~」·「或呼」는 각 장 편술자의 표현차이와 판단차이에 따라 다르게 사용된 것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俗音-或呼
 <氣候>편: 河訶허갈연연: 河俗音호
 <水族>편: 河訶허鮑뚱뚱: 河或呼호
- 俗呼-或呼
 <身體>편: 氣키키嚙상상: 氣俗呼치
 <花草>편: 香향향氣키키花화화: 氣或呼치
- 或呼-俗音
 <倉庫>편: 盤뽀뽀糧량량: 盤或呼관
 <瑣說·二字類>편: 盤뽀뽀纏전전: 盤或呼관
 <器具>편: 盤뽀뽀子증증: 盤俗音관

또한 같은 장에서도 하나의 글자에 대해 「俗音」과 「俗呼」를 같이 쓰고 있는 경우도 있다. 「~音」과 「~呼」도 실제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俗音-俗呼
 <服飾>편: 簪즌즌子증증: 簪俗音잔
 頂딩딩簪즌즌: 簪俗呼잔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용어간의 차이가 기본적으로는 크지 않다는 전제 하에, 각 서술용어가 수록한 어음이 포함한 어음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상용음인 右音과의 어음내용 비교를 통해 俗音·或音의 내용을 명확히 정리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攝韻에 따라 한어 어휘를 구분하여 분석한다. 다음과 같다.

1. 通攝 屋韻

通攝 屋韻字에 나타난 「或呼」와 「俗呼」의 내용은 중국 明清음과 현대 白話音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다음과 같다:

木旁무軸종주: 軸或呼주

[어원: 《廣韻》入屋 直六切 澄母 開口三等 軸]

軸의 右音이 「주」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는 《老乞大諺解》나 《朴通事諺解》(1677)·《華東正音通釋韻考》(1747)의 표기음 「주」와 같다²⁾. 이토 지유키 저·이진호 역의 《한국 한자음 연구》에서 분석한 15, 16세기의 한국 언문 표기법³⁾에 근거하면, 중성 「ㄷ」는 屋韻 軸의 변천과정 중 軸의 문언음 「-u」의 표기음으로 판단할 수 있다. 王力 《漢語語音史》에서 屋韻의 변천과정을 -iok > -iuk > -iu(원) > -y(명청) > -u(현대)⁴⁾로 擬音하였다. 王力은 「-u」음을 현대 漢語音으로 표기하고 있지만, 《譯語類解》 등의 조선시대 중국 회화학습책의 자료를 근거로 판단하면, 중국 漢語에서 17세기에 이미 -u음이 출현했음이 증명된다.

또한 「或呼주」의 「ㄱ」는 軸는 현대 백화음 -əu의 표기음임을 알 수 있다. 《譯語類解》에서 17세기 당시 -əu⁵⁾음으로 발음되던 《廣韻》有韻

2) 본 논문의 조선시대 중국어 회화학습책 《四聲通解》(1517)·《老乞大諺解》·《朴通事諺解》(1677)·《華東正音通釋韻考》(1747)·《三韻聲彙》(1751)·《奎章全韻》(1796)·《華音啓夢諺解》(1883?)의 중국 한어 표기음은 楊人從 《韓國漢字音과 中國北方音의 比較研究》의 〈韓國韻書 및 譯學用書 韓中漢字音一覽〉 도표 275-405에 따른다.

3) 이토 지유키 저·이진호 역, 《한국 한자음 연구》, 도서출판 역락, 2011년 11월, 365-368쪽 참고. 이하 본 논문의 언문 표기법은 《한국 한자음 연구》를 참고한다.

4) 王力, 《漢語語音史》,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5年, 508쪽. 본 논문의 어음표기법은 王力の 《漢語語音史》에 따른다.

5) 王力, 《漢語語音史》,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5年, 501쪽.

開口三等 審母 手를 「수」로 표기한 것을 근거할 때, 軸의 或音 「주」의 「ㄱ」는 -əu의 표기음임을 알 수 있다.

오늘날 濟南방언에도 軸는 tʂəu와 tʂu음이 동시에 존재하고, 成都방언에는 tsu음으로 발음되고 있으며, 長沙지역에서도 軸는 ts'əu⁶⁾로 발음되고 있어, 한어 어음변천사의 -əu와 -u 두 음의 존재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17세기 후반에 軸의 현대 문언음 「-u」와 백화음 「-əu」가 동시에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肉齣수: 肉俗呼^수, 又슈

肉齣수包발반: 俗呼슈반

[어원: 《廣韻》入屋 如六切 日母 開口三等 肉]

肉은 右音에서 「수」로 표기되어 있다. 이는 《老乞大諺解》나 《朴通事諺解》(1677)·《華東正音通釋韻考》(1747)의 표기음 「수」와 같다. 「수」는 위에서 분석한 「軸」의 右音 「주」와 같이 肉의 현대 文言音 -u의 표기음이다. 肉의 -u음은 王力이 현대음⁷⁾으로 표기한 것과 달리 17세기에 중국에서 상용음으로 이미 출현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俗呼수」의 「ㄱ」는 軸에서 분석한 것과 같이 肉의 현대 백화음 -əu의 표기음이다. 오늘날 成都방언에도 zu(문언문)과 zəu(백화음)의 文白兩讀이 나타나고 있어,⁸⁾ 중국 漢語 어음변천사에서 「肉」의 -əu와 -u 두 음의 존재 자료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又슈」·「俗呼슈」의 중성 「ㅍ」는 《한국 한자음 연구》에서 분석한 15, 16세기의 한국 언문 표기법에 의하면 -y나 -iu에 대한 한국 한자음 표기법임을 알 수 있다. 《譯語類解》에서도 명칭시기부터 현대까지 y⁹⁾음으로

6) 北大中文系語言學教研室編, 《漢語方音字彙》, 語文出版社, 2003, 208쪽.

7) 王力, 《漢語語音史》,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5年, 508쪽.

8) 北大中文系語言學教研室編, 《漢語方音字彙》, 語文出版社, 2003, 211쪽.

9) 王力, 《漢語語音史》,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5年, 499쪽.

발음되던 雨의 右音이 「유」로 표기되고 있다. 王力 《漢語語音史》에 의하면 「肉」의 어음 변천과정을 -iok>-iuk>-iu(원)>-y(명청)>-u(현대)¹⁰⁾로 추측된다. 그렇다면 명청시기에 撮口音 -y가 존재했었고, 《譯語類解》를 편술한 譯官과 漢人들은 이미 현대음인 -u음을 대표 상용음으로 간주하고, -y를 又音이나 俗音으로 판단한 것이다. 17세기 중국에 현대 -u음이 明清시기 -y음보다 상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江攝 覺韻

江攝 覺韻字에 나타난 「或呼」의 내용은 현대 文言音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다음과 같다:

취발반衣이裳쌍상: 剥或呼보

취발반菱링링角갑교: 剥或呼보

[어원: 《廣韻》入覺 北角切 幫母 開口二等 剥]

剥의 右音 「보」는 《華東正音通釋韻考》(1747)과 《華音啓蒙諺解》(1883)의 표기음 「보」와 같다. 《譯語類解》에서 「교」는 《廣韻》皓韻 開口一等의 好·腦·老·保·草 등 글자의 右音 -au¹¹⁾를 표기하였고, 王力은 《廣韻》覺韻 開口二等 글자의 어음변천에서 元·明·清·현대까지의 운모를 -au로 擬音하였다.¹²⁾

「或呼보」의 중성 「ㄱ」는 -o의 표기법이다. 《老乞大諺解》나 《朴通事諺解》(1677)·《華東正音通釋韻考》(1747)·《華音啓蒙諺解》(1883) 등에는 보이지 않는 표기음이다. 현대 북경지역의 《廣韻》入覺 北角切 幫母

10) 王力, 《漢語語音史》,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5年, 508쪽.

11) 王力은 宋代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 글자가 「-au」韻母로 발음되었다고 擬音한다. 王力, 《漢語語音史》,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5年, 500쪽.

12) 王力, 《漢語語音史》,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5年, 509쪽.

開口二等「𪛗」에 대한 발음은 문언음 po와 백화음 pau가 있다¹³⁾. 《譯語類解》에서는 현대 중국어의 文言音을 或音으로 표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7세기 후반에 두 가지 음이 중국 漢語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 止攝

止攝字에 나타난 「或呼」와 「俗呼」·「俗音」의 내용은 明清 이전음과 현대음, 방언음 및 又音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다음과 같다:

氣키키嚙상상: 氣俗呼치

香향향氣키키花화화: 氣或呼치

[어원: 《廣韻》去未 去既切 溪母 開口三等 氣]

「氣」의 右音 「키」와 「俗呼」·「或呼」로 표기된 「치」는 성모에서 차이를 나타낸다. 王力에 의하면 溪母 細音의 어음변천은 k'(~명칭)>-te「(현대)」¹⁴⁾이다. 오늘날 廈門방언의 문언문, 潮州방언의 문언문, 建甌방언의 문언문에서도 氣는 k'이로 발음되고 있어,¹⁵⁾ 한어 어음변천사에서의 k'음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다. 「氣」의 右音 「키」는 명청시대의 k'음을 표기한 것이다. 19세기 말 북경음을 표기한 《華音啓蒙諺解》(1883)에서는 「氣」가 「치」로 표기되어 있다. 《譯語類解》표기의 「치」는 현대 한어의 te'음을 표기한 것이다. 王力이 추측한 te'음의 발생시기보다 이른 17세기 말에 이미 舌面音 te'가 출현했음을 알 수 있다.

13) 北大中文系語言學教研室編, 《漢語方音字彙》, 語文出版社, 2003, 29쪽.

14) 王力, 《漢語語音史》,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5年, 495쪽.

15) 北大中文系語言學教研室編, 《漢語方音字彙》, 語文出版社, 2003, 93쪽.

紙중즈窩휘오子중즈: 紙俗音ヅ

燒상ㅅ紙중즈: 紙或呼ヅ

[어원: 《廣韻》上紙 諸氏切 照母 開口三等 紙]

紙의 右音 「즈」는 《老乞大諺解》나 《朴通事諺解》(1677)·《華東正音通釋韻考》(1747)·《華音啓蒙諺解》(1883)의 표기음 「즈」와 같다. 《譯語類解》 右音에는 支脂之 세 韻의 精系字와 知照系字가 모두 중성 「ㄹ」로 표기된다. 예를 들면, 《廣韻》志韻 疾置切 從母 字의 右音이 「즈」이고, 《廣韻》旨韻 職雉切 照母 旨의 右音이 「즈」로 표기된다. 《廣韻》之韻 息茲切 心母 絲의 右音은 「스」이며, 《廣韻》止韻 疎土切 疏母 使의 右音도 「스」이다. 王力이 擬音한 止韻 어음변천은 -iai>-ie(서한-남북조)>-i(수당-송)>ㄹ(원-현대)이며, 明清시대의 ts음 발생¹⁶⁾을 고려할 때, 紙의 右音 「즈」는 漢語 tsㄹ의 표기음임을 알 수 있다.

「俗音ヅ」과 「或呼ヅ」의 「ヅ」는 매우 독특한 표기음이다. 「ヅ」는 《老乞大諺解》나 《朴通事諺解》(1677)·《華東正音通釋韻考》(1747)나 《華音啓蒙諺解》(1883)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四聲通解》(1517)에 나타나고 있어서 시대적으로 이전음을 표기했을 가능성이 크다. 《譯語類解》에서 「△」은 支脂之 세 韻의 精系字와 知照系字의 左音 중성이나 日母자의 左右音 초성과 左音 중성으로 표기된다. 예를 들면, 審母 失의 左音은 「슌」로 표기되고 右音은 「스」로 표기되고, 心母 廐의 좌음은 「슌」로 표기되고 右音은 「스」로 표기된다. 日母 兒耳의 左音은 「슌」로 표기되고 右音은 「술」로 표기되고, 日의 左音은 「싱」로 표기되고 又音은 「시」로 표기된다. 《譯語類解》에 나타나는 중성 「△」은 左音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전음이나 독서음을 표현한 것을 알 수 있다. 《譯語類解》에서는 -iǝ>-i(수당-오대)>-ㄹ(송-현대)¹⁷⁾의 어음변천을 거친 精母 「子」의 左音을 「중」로 표시하고 있어, 중성 「ㄹ」가 중성 -ㄹ를 가진 讀書音 音價를 나타내고 있음을

16) 王力, 《漢語語音史》,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5年, 494쪽, 504쪽 참고.

17) 王力, 《漢語語音史》,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5年, 497쪽 참고.

알 수 있다. 「俗音ヱ」와 「或呼ヱ」의 「ヱ」는 중성 -i의 유사음이 반영된 발음으로, 王力이 擬音한 知照系字의 어음변천 -iai>-ie(서한-남북조)>-i(수당-송)>ɿ(원-현대)¹⁸⁾를 고려할 때, ɿ 이전의 발음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현대 중국 廣州방언과 陽江방언에서 紙가 tʃi로 발음되고, 厦門방언의 문언음과 福州방언의 문언음 및 建甌방언의 문언음에서 tsi로 발음되는 것을 근거할 때¹⁹⁾, 「ヱ」는 17세기 후반까지 남아있던 -i의 유사음을 표현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支脂之 세 韻 精系字와 知照系字의 鼻音이 포함된 音價를 구현한 것이다.

니니니구구: 尼俗呼미

[어원: 《廣韻》平脂 女夷切 娘母 開口三等 尼]

尼의 右音 「니」는 중국에서 隋唐 이후 현대까지 동일하게 발음된 ni²⁰⁾의 표기음이다. 「俗呼미」의 「미」발음은 조선시대 중국어 회화책이나 중국 한어의 어원에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현대 중국 福建省 建甌지역에서 니를 문언음 ni로 발음하고 백화음 mi로 발음하고 있고, 安徽省 合肥지역에서는 齊韻 奴低切의 泥母 開口四等 泥의 백화음이 m로 발음되고 있으며,²¹⁾ 山東省 壽光지역과 山東省 靑島지역에서 泥板을 「mi pǎ」로 발음하고 있어,²²⁾ 당시 민간에서 쓰이던 방언을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辭瓮츠酒깁주: 辭字本不變音, 而俗呼츠

[어원: 《廣韻》平之 似茲切 邪母 開口三等 辭]

18) 王力, 《漢語語音史》,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5年, 492쪽, 503쪽.

19) 北大中文系語言學教研室編, 《漢語方音字彙》, 語文出版社, 2003, 62쪽.

20) 王力, 《漢語語音史》,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5年, 492쪽, 503쪽.

21) 北大中文系語言學教研室編, 《漢語方音字彙》, 語文出版社, 2003, 80쪽.

22) 許寶華, (日)宮田一郎 主編, 《漢語方言大詞典》, 中華書局, 1999年, 3659-3660쪽.

辭의 右音을 「츠(ts'ɿ)」로 표기한다. 그러나 해설에서 「辭字本不變音, 而俗呼츠(辭는 본디 不變音이나 속음에서 츠라고 한다)」라고 하여, 辭의 발음이 변하여 「츠」로 발음됨을 나타내고 있다. 辭는 全濁의 邪母 글자로서 《老乞大諺解》나 《朴通事諺解》(1677)·《華東正音通釋韻考》(1747)에서 「스」로 표기하고, 《華音啓蒙諺解》(1883)에서 「츠」로 표기한다. 辭는 邪母 細音의 어음변화규칙[z(-五代)>s(송-명청)>c(현대)²³⁾]과는 예외로 詞祠 등과 함께 현대 한어에서 ts'ɿ로 발음되는 글자이다. 《老乞大諺解》나 《朴通事諺解》(1677)·《華東正音通釋韻考》(1747)의 「스」음을 고려할 때 z>s>ts의 과정을 거쳤음을 알 수 있다. 《譯語類解》의 「辭字本不變音, 而俗呼츠」는 「스」에서 「츠」발음으로 변화하였음을 표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17세기 중국에 辭詞祠의 어음이 이미 s-음에서 ts'-음으로 변하여 상용되고 있었음을 나타낸다.

竹중주飾스스子중즈: 飾俗音새

[어원: 《廣韻》平脂 疏夷切 疏母 開口三等 飾

《康熙字典》²⁴⁾:《廣韻》疏夷切~, 又《玉篇》所佳切, 《篇海》山皆切.]

飾의 右音 「스」는 《廣韻》脂韻 飾의 근대음과 현대음 sɿ²⁵⁾의 표기음이고, 「俗音새」는 《玉篇》所佳切의 현대음 sai의 표기음임을 알 수 있다. 《漢語方言大詞典》에도 飾의 普通話와 安徽 安慶지역, 四川 自貢 등 지에서의 독음을 sai로 표현하고, 上海語에서 飾谷에 대한 독음을 「sɿ ko?」으로 표현하여²⁶⁾, 중국 어음에서 두 가지 발음이 존재하였음을 증명하고 있다. 飾의 「俗音새」는 飾의 두 어원의 어음을 표기하고 있으며, 당시에

23) 王力, 《漢語語音史》,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5年, 491쪽.

24) 清)張玉書等 編, 《康熙字典》, 上海書店出版社, 1985年, 993쪽.

25) 王力, 《漢語語音史》,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5年, 493쪽, 498쪽 疏母와 脂韻 開口三等的 어음변천내용 참고.

26) 許寶華, (日)宮田一郎 主編, 《漢語方言大詞典》, 中華書局, 1999年, 6190쪽, 6191쪽.

籊의 두 어음이 존재했었음을 알 수 있다.

4. 遇攝

遇攝字에 나타난 「或呼」의 내용은 현대 漢語音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다음과 같다:

鉅 규 子중즈: 鉅或呼쥬

[어원: 《廣韻》上語 其呂切 群母 開口三等 鉅]

鉅의 右音 「규」와 「或呼쥬」에 나타나는 「쥬」의 차이는 성모이다. 《老乞大諺解》나 《朴通事諺解》(1677)·《華東正音通釋韻考》(1747)에서는 「규」음으로 표기되어 있고, 《華音啓蒙諺解》(1883)에서는 「쥬」음으로 표기되어 있어, 「쥬」는 후기음을 표기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王力の 擬音에 의하면 群母 仄聲字의 어음변천은 g->k-(송-명청)>tc(현대)²⁷⁾이다. 그러므로 「규」는 명청시기의 성모 k-의 표기음이고, 「쥬」는 현대의 tc-의 반영음을 알 수 있다. 同音字 巨拒踞는 현대 중국 建甌지역에서 「ky」로 발음되고 있어²⁸⁾ 어음변천과정에서의 「ky」음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다. 중국 漢語에서 17세기 후반에 이미 「鉅」의 현대음이 口語에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5. 蟹攝

蟹攝字에 나타난 「或呼」·「俗呼」의 내용은 방언음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다음과 같다:

27) 王力, 《漢語語音史》,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5年, 495쪽.

28) 北大中文系語言學教研室編, 《漢語方音字彙》, 語文出版社, 2003, 134쪽.

退뒤뒤泥니니: 泥或呼미

泥니니饅면면: 泥俗呼미

泥니니緘칭취魚유유: 泥或呼미

[어원: 《廣韻》平齊 奴低切 泥母 開口四等 泥]

《譯語類解》에는 泥의 「미」음은 세 어휘에서 기록되어 있다. 泥의 右音 「니」는 王力이 擬音한 어음변천²⁹⁾에 근거하면, 중국 宋 이후 현대까지 이어진 「ni」발음의 표기음으로 볼 수 있다. 「俗呼미」·「或呼미」의 「미」음은 조선시대 중국어 학습책이나 중국 漢語의 어원에는 근거가 보이지 않는다. 다만 현대 중국 安徽省 合肥지역에서 泥의 백화음이 m로 발음되고 있으며,³⁰⁾ 山東 壽光지역과 山東 靑島지역에서 泥板을 「mi pǎ」로 발음하고 있어,³¹⁾ 당시 민간에서 쓰이던 방언을 표현한 것으로 보여진다. 발음방법이 같은 明母자와 泥母자의 발음이 互變하는 현상은 중국 어음현상에서 종종 일어났다.³²⁾ 《譯語類解》 편집에 조언해주던 당시 漢人 중에 福建省이나 安徽省, 山東省 등 중국 동부출신의 중국인이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螻蚘치螻짚츠: 螻俗音츠

[어원: 《廣韻》平齊 徂奚切 從母 開口四等 螻]

王力은 齊韻 從母 開口四等の 어음변천을 -ie>-iæi>-i(송-현대)와 dz->ts'-(송-명청)>te'-(현대)³³⁾로 擬音하여 명청시기의 ts'i음과 현대의 te'i음을 표기했다. 螻의 右音 「치」는 ts'i나 te'i 발음에 대한 표기이다. 《老

29) 王力, 《漢語語音史》,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5年, 492쪽, 503쪽.

30) 北大中文系語言學教研室編, 《漢語方音字彙》, 語文出版社, 2003, 80쪽.

31) 許寶華, (日)宮田一郎 主編, 《漢語方言大詞典》, 中華書局, 1999年, 3659-3660쪽.

32) 陳新雄, 《古音學發微》, 文史哲出版社, 1972年, 672쪽.

33) 王力, 《漢語語音史》,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5年, 491쪽, 498쪽.

《乞大諺解》나 《朴通事諺解》(1677)·《華東正音通釋韻考》(1747)·《華音啓蒙諺解》(1883)에서도 모두 「치」로 표기되어 있다.

「俗音츠」의 「츠」는 현대 중국어 보통화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安徽省合肥 지역에서 ts'ɿ³⁴)로 발음되고, 山東 牟平에서는 tsɿ³⁵)로 발음된다. 당시 민간에서 쓰이던 방언을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草窠螻蛄비비: 螻蛄俗音피

[어원: 《廣韻》平齊 邊兮切 幫母 開口四等 螻蛄]

螻蛄의 右音 「비」는 중국어의 근대음과 현대음 pi의 표기이다. 《華東正音通釋韻考》(1747)에서도 齊韻 幫母 籠籠蛄 등의 글자는 「비」로 표기되어 있다. 「俗音피」는 중국 한어 보통화에서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지만, 현대 중국의 북경어와 일부 방언에서 현대음 pi의 幫母字가 p'i음으로 발음되는 흔적이 남아 있다. 예를 들어, 《廣韻》 旨韻 卑履切 幫母 比는 북경에서 pi·p'i의 두 가지 음이 남아있고, 《廣韻》 旨韻 方美切 幫母 鄙는 西安·武漢·成都·長沙·雙峰·南昌·梅縣·廈門·潮州·福州·建甌 등지에서 p'i로 발음된다.³⁶⁾ 螻蛄의 「비」와 「피」는 같은 발음부위에서 送氣의 여부만 차이 나기 때문에 互變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당시 중국 漢語에서 螻蛄의 발음 중에 p'i음이 존재했고, 《譯語類解》에서 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6. 臻攝

臻攝字에 나타난 「俗呼」의 내용은 방언 어음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다음과 같다:

34) 北大中文系語言學教研室編, 《漢語方音字彙》, 語文出版社, 2003, 91쪽.

35) 許寶華, (日)宮田一郎 主編, 《漢語方言大詞典》, 中華書局, 1999年, 6101쪽.

36) 北大中文系語言學教研室編, 《漢語方音字彙》, 語文出版社, 2003, 72쪽.

耳會 輪韻: 輪俗呼

[어원: 《廣韻》平諄 力逆切 來母 合口三等 輪]

명나라 이후 *iu*가 撮口呼 *y*로 단음화되었다³⁷⁾면, 輪의 右音 「륜」은 중국어의 근대음 *lyən*의 표기이다. 그 증거는 다음과 같다. 《廣韻》問韻 王問切 合口三等 爲母 暈은 元·明·淸·현대에 *yən*으로 발음되었는데 《譯語類解》에서 「윤」으로 표기되어 있고, 元·明·淸시대 *-yən*³⁸⁾으로 발음되던 「春」도 「춘」으로 표기되어 있다. 《譯語類解》 輪의 左右音 「륜」은 현대 *-uən* 이전음 *-yən*의 표기임을 알 수 있다. 그 외에도 《老乞大諺解》나 《朴通事諺解》(1677)·《華東正音通釋韻考》(1747)에서 輪이 「륜」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華音啓蒙諺解》(1883)에서는 중국 현대음 *luən*의 표기음 「륜」으로 표기되는 것도 확실한 근거이다.

「俗呼」의 音價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元·明·淸·현대에 *-ən*으로 발음되던³⁹⁾ 《廣韻》痕韻 古痕切 開口一等 見母 根이 《譯語類解》와 《老乞大諺解》나 《老乞大諺解》나 《朴通事諺解》(1677)·《華東正音通釋韻考》(1747)·《華音啓蒙諺解》(1883)에서 모두 「근」으로 표기되어 있고, 현대 한어에서 *-ən*으로 발음되는 《廣韻》魂韻 莫奔切 合口一等 明母 門이 《譯語類解》와 《老乞大諺解》나 《朴通事諺解》(1677)·《華東正音通釋韻考》(1747)·《華音啓蒙諺解》(1883)에서 모두 「문」으로 표기되고, 《廣韻》混韻 布忖切 合口一等 幫母 本이 《譯語類解》와 《老乞大諺解》나 《朴通事諺解》(1677)·《華東正音通釋韻考》(1747)에서 「븐」으로 표기되고, 《華音啓蒙諺解》(1883)에서 「븐」과 「번」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근거할 때, 《譯語類解》「俗呼」의 「ㄴ」은 *-ən*의 표기음이고, 「륜」은 *lən*의 표기법임을 알 수 있다. 중국 한어 보통화에서 輪의 *lən*음은 보이지 않지만, 合肥·揚州·蕭州·長沙·南昌지역에서는 輪이 *lən*으로 발음된

37) 丁鋒, 《琉漢對音與明代官話音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5, 49쪽 참고.

38) 王力, 《漢語語音史》,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5年, 491쪽, 520쪽.

39) 王力, 《漢語語音史》,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5年, 520쪽.

다.⁴⁰⁾ 민간 각 지역 방언에서 많이 쓰이던 어음에 대한 표기음이다.

7. 山攝

山攝字에 나타난 「或呼」·「俗呼」·「俗音」의 내용은 현대음과 방언음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다음과 같다:

盤餸餸糧량량: 盤或呼관

盤餸餸子중즈: 盤俗音관

盤餸餸纏전천: 盤或呼관

[어원: 《廣韻》平桓 薄官切 並母 合口一等 盤]

王力은 《廣韻》桓韻 並母 合口一等 글자의 어음변천을 -uan>-uan>-uan>-uon(원)>-an(명청-현대)⁴¹⁾로 擬音하였다. 盤의 右音 「餸」은 音價로 볼 때, 王力이 擬音했던 元나라 시기의 p'uon의 표기이다. 같은 예로, 元대에 p'uon으로 발음되고, 明清시기부터 현대까지 pan으로 발음되었던⁴²⁾ 《廣韻》換韻 博慢切 合口一等 幫母 半이 《譯語類解》와 《老乞大諺解》 및 《朴通事諺解》(1677)에서 「번」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華音啓蒙諺解》(1883)에서는 「반」으로 표기되어 있다. 또한 盤은 《三韻聲彙》(1751)와 《奎章全韻》(1796)에서는 合口の 音價인 「餸」으로 표기되고 있기 때문에 당시 17세기 후반에 p'uon음의 존재 가능성이 충분히 증명된다. 혹은 현대음 p'an 발생 이전의 元나라 이후 開口音 p'on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가정할 수 있다. 실제로 현대 중국 江西省 南昌 방언에서 盤은 p'on으로 발음되고 있어⁴³⁾ 어음변천사에서 p'on의 존재 가능성을 나타

40) 北大中文系語言學教研室編, 《漢語方音字彙》, 語文出版社, 2003, 295쪽.

41) 王力, 《漢語語音史》,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5年, 491쪽, 522쪽.

42) 王力, 《漢語語音史》,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5年, 490쪽, 522쪽.

43) 北大中文系語言學教研室編, 《漢語方音字彙》, 語文出版社, 2003, 224쪽.

내고 있다.

그렇다면 「或呼판」이나 「俗音판」의 「판」음은 현대 중국 한어 보통화의 발음 p'an의 표기음임을 알 수 있다. 《譯語類解》의 右音으로 p'uon을 표기했지만 17세기 후반에 p'an음도 함께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盤는 《華東正音通釋韻考》(1747)에서는 「뽀」으로 표기되었으나 《華音啓蒙諺解》(1883)에서는 「판」으로 표기되고 있다.

그 외에도 《譯語類解》에서는 《廣韻》平桓 薄官切 並母 合口一等 蟠에 대해 「土투투蟠뽀뽀: 蟠今俗或판」라고 하였고, 《廣韻》平桓 母官切 明母 合口一等 鑊에 대해 「鐵뽀뽀鑊뽀뽀: 鑊俗呼판」으며, 《廣韻》平桓 薄官切 並母 合口一等 槃에 대해 「뽀뽀뽀槃뽀뽀: 槃俗呼판」이라 하였고, 《廣韻》平桓 薄官切 並母 鬣에 대해서 「合口一等 鬣뽀뽀뽀頭뽀뽀: 鬣或呼판」이라 하였는데, 같은 예이다.

卵뽀뽀뽀毛뽀뽀: 卵或呼판

[어원: 《廣韻》上緩 盧管切 來母 合口一等 卵]

卵의 右音 「뽀」은 《華東正音通釋韻考》(1747)·《三韻聲彙》(1751)·《奎章全韻》(1796)의 표기음 「뽀」과 일치한다. 「뽀」은 王力이 擬音했던 元나라 시기의 luon이나 明·淸·현대음 luan⁴⁴⁾의 표기음이다.

「或呼판」의 「판」은 《華音啓蒙諺解》(1883)의 표기음 「판」과 일치한다. 현대 중국 북경지역에서 卵은 luan음과 함께 口語에 開口化된 lan음이 존재한다.⁴⁵⁾ 한국 한자음에서도 卵이 「판」으로 발음된다. 그러므로 「판」은 17세기 후반 민간에서 卵의 음으로 발음되던 어음을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뽀뽀뽀뽀뽀뽀來뽀뽀: 血俗音혀

[어원: 《廣韻》入屑 呼決切 曉母 合口四等 血]

44) 王力, 《漢語語音史》,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5年, 522쪽.

45) 北大中文系語言學教研室編, 《漢語方音字彙》, 語文出版社, 2003, 264쪽.

血의 韻母변화는 -iuet > -iuæt(수당-송) > -yæ(원) > -ye(명청-현대)⁴⁶⁾이다. 명청시기의 eye음의 발음이 이미 존재했고, 血의 右音 「暱」는 eye의 표기음이다.

현대 중국의 北京·濟南·成都·長沙 등지에는 血의 문언음 eye와 백화음 cie가 공존하고 있다⁴⁷⁾. 「俗音혀」의 「혀」가 백화음 cie에 대한 표기음은 명백하다. 당시의 《老乞大諺解》 및 《朴通事諺解》(1677)에서도 右音에 「暱」와 「혀」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17세기 후반에 민간에 血의 cie음이 이미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饜전관츄형혀: 饜俗音관

[어원: 《廣韻》上澇 雛統切 牀母 合口二等
《廣韻》去線 士戀切 牀母 合口三等 饜]

《譯語類解》에 수록된 饜의 右音 「관」은 《華東正音通釋韻考》(1747)의 「관」이나 《奎章全韻》(1796)의 「전」과는 내용이 다르다. 王力에 의하면 牀母 仄聲의 어음변천은 dz- > z- > tɕ- > tɕʰ-(元 이후~현대)이다. 饜의 右音 「관」은 《廣韻》上澇 雛統切 牀母 合口二等的 어원을 가지고 元·明清·현대의 발음 tɕuan의 표기음이다.

「俗音관」의 「관」은 당시 민간에서 발음되는 어음을 표기한 것이다. 오늘날 江西省 臨川에서 饜의 발음으로 남아있는 ts'uan의 표기음으로 보인다. 1915년에 조선에서 간행된 崔南善의 《新字典》에 수록된 饜의 한국 한자음 【찬】(澇)과 【전】(霰)⁴⁸⁾ 또한 饜의 두 어음이 중국에 존재했을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준다.

46) 王力, 《漢語語音史》,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5年, 490쪽, 512쪽.

47) 北大中文系語言學教研室編, 《漢語方音字彙》, 語文出版社, 2003, 50쪽.

48) 崔南善, 朝鮮光文會編纂, 《新字典》 四, 京城新文館, 1915년, 41쪽.

8. 效攝

效攝字의 「俗呼」·「或呼」의 내용은 중국 한어 현대 兩讀 又音에서 근거 자료를 찾을 수 있다.

鳥喃ㄋㄢ子ㄗ즈즈: 鳥俗呼ㄉㄠ

[어원: 《廣韻》上篠 都了切 端母 開口四等 鳥]

鳥의 右音 「ㄋㄠ」는 《華東正音通釋韻考》(1747)·《華音啓蒙諺解》(1883)의 표기음과 같다. 그러나 《三韻聲彙》(1751)·《奎章全韻》(1796)에는 「ㄉㄠ」로 표기되어 「鳥俗呼ㄉㄠ」와 같은 성모로 표기되었다. 《譯語類解》 및 《華東正音通釋韻考》(1747)·《華音啓蒙諺解》(1883)와 《三韻聲彙》(1751)·《奎章全韻》(1796)의 표기음을 고려할 때 鳥의 성모 n과 t의 두 음은 17세기 이전부터 함께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辭海》에서는 鳥에 대한 어음을 niau와 tiau로 기록하면서, niau는 「飛禽의統稱(날짐승의 총칭)」을 주요 의미로 언급하고, tiau는 《水滸傳》의 예문을 언급하며 「罵人的粗話(사람을 욕하는 말)」이라 해설하였다.⁴⁹⁾ 또한 현대 중국의 長沙와 梅縣의 문언음에서는 njiau로 발음되고, 백화음에서는 tiau로 발음되고 있어,⁵⁰⁾ 두 어음의 흔적을 엿볼 수 있다. 王力의 《漢語語音史》에 의하면 《廣韻》上篠 都了切 端母 開口四等 한자는 元나라 시기부터 이미 -iau운모로 발음되기 시작하였다.⁵¹⁾ 그러므로 「ㄋㄠ」와 「ㄉㄠ」는 각각 현대 중국에서 鳥의 독음으로 발음되는 niau와 tiau에 대한 표기임을 알 수 있다.

酒ㄐ징ㄱ궤ㄴ궤강강: 醉ㄉ或呼ㄠ

[어원: 《廣韻》去效 古孝切 見母 開口二等 醉]

49) 辭海編輯委員會 編, 《辭海》, 上海辭書出版社, 1989年, 4639쪽.

50) 北大中文系語言學教研室編, 《漢語方音字彙》, 語文出版社, 2003, 195쪽.

51) 王力, 《漢語語音史》,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5年, 501쪽.

酵는 현대 중국 한어에서 teiau와 ciau의 두 가지 발음을 가진 한자이다. 현대 北京지역에서는 teiau와 ciau의 두 가지 음이 있으며, 西安과 太原 지역에서는 문언음은 ciau으로 발음되고, 백화음은 teiau으로 발음된다.⁵²⁾ 《譯語類解》에서도 「或呼」라는 표현을 써서 두 발음이 당시 동시에 상용됨을 표시하고 있다.

花화화鴉방반: 鴉俗音부

鴉방반子중즈: 鴉俗音부

[어원: 《廣韻》上皓 博抱切 幫母 開口一等 鴉]

鴉는 《譯語類解》 및 《華東正音通釋韻考》(1747)·《華音啓蒙諺解》(1883)에서 모두 「보」로 표기된다. 「보」는 宋나라에서 현대까지의 발음인 pau⁵³⁾의 표기음이다. 그렇다면 「鴉俗音부」의 「부」는 무슨 표기음일까? 오늘날 《廣韻》上皓 博抱切 幫母 開口一等的 同音字 堡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堡는 현대 北京과 成都 지역에서 문언음 pau와 백화음 p'u로 발음되고, 西安과 太原지역에서는 문언음 pau와 백화음 pu로 발음된다.⁵⁴⁾ 同音字 堡를 근거로 하면, 鴉도 당시에 상용음 pau 이외에 민간에 「부」음이 존재했고 《譯語類解》에서 표기했을 가능성이 크다.

9. 果攝

果攝字의 「俗音」·「或呼」의 내용은 근대음과 현대음의 어음변천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52) 北大中文系語言學教研室編, 《漢語方音字彙》, 語文出版社, 2003, 198쪽.

53) 王力, 《漢語語音史》,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5年, 501쪽.

54) 北大中文系語言學教研室編, 《漢語方音字彙》, 語文出版社, 2003, 176쪽.

河허허沿연연: 河俗音호

河허허訕똥똥: 河或呼호

[어원: 《廣韻》平歌 胡歌切 匣母 開口一等 河]

王力 《漢語語音史》에 의하면, 匣母 洪音字의 어음변천은 ɣ>ɦ(오대)>h(송)>x(원-명청-현대)이고, 歌韻 開口一等 匣母의 어음변천은 -ai>-a>-ɔ(송-명청)>ə(현대)이다.⁵⁵⁾ 즉, 명청시기 河의 발음은 xɔ이고, 현대의 발음은 xə이다. 《譯語類解》와 《老乞大諺解》 및 《朴通事諺解》(1677), 《華東正音通釋韻考》(1747)·《華音啓蒙諺解》(1883)에는 모두 「허」음을 표기하고 있다. 《譯語類解》에서 「俗音」이나 「或呼」로 표기한 「호」는 명청시기 xɔ의 표기음이고, 右音 「허」는 현대의 xə음임을 알 수 있다. 현대 중국의 武漢·成都·揚州·長沙 지역에서 河는 xo로 발음되고, 南昌·梅縣·廣州·陽江 지역에서는 ho 등으로 발음되고 있어 xɔ와 유사한 音價를 나타내고 있다.⁵⁶⁾ 《譯語類解》의 「호」는 중국 한어어음변천 과정 중 xɔ음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다. 17세기 후반 한어에서 河는 상용음 xə가 이미 출현했고, 민간에서 xɔ음이 남아있었음을 알 수 있다.

같은 예로, 같은 韻의 동일한 喉音 글자인 《廣韻》平歌 烏何切 影母 開口一等 阿에 대해 《譯語類解》에서 「阿허아嫂살살: 阿或呼호」로 표기하여 당시 현대 한어 백화음 -a음이 이미 상용되고 있었음을 충분히 나타내고 있다. 阿의 -ɔ음은 현대 중국 梅縣·廣州·福州·建甌지역의 문언음으로 남아 있다.⁵⁷⁾

鍋꺠고바바바水쉬쉬: 鍋俗呼거

[어원: 《廣韻》平戈 古禾切 見母 合口一等 鍋]

55) 王力, 《漢語語音史》,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5年, 496쪽, 504쪽.

56) 北大中文系語言學教研室編, 《漢語方音字彙》, 語文出版社, 2003, 26쪽.

57) 北大中文系語言學教研室編, 《漢語方音字彙》, 語文出版社, 2003, 9쪽.

王力 《漢語語音史》에 의하면, 戈韻 見母 合口一等的 어음변천은 -uai > -ua > -uo(송·명청) > -uo(현대)이다.⁵⁸⁾ 명청시기 鍋의 발음은 kuɔ이고, 현대의 발음은 kuo이다. 명청시기에서 현대로 오면서 주요원음의 발음 위치가 半低의 ɔ에서 半高의 o로 높아졌다. 《譯語類解》에서는 이 변화를 右音 「고」와 「俗呼」의 「거」로 표현한 것으로 판단된다. 《譯語類解》와 《老乞大諺解》 및 《朴通事諺解》(1677)·《華東正音通釋韻考》(1747)에서는 「고」로 표기하고, 《華音啓蒙諺解》(1883)에는 「귀」음으로 표기하였다. 사실, -uo에 대한 표음은 合口를 표현한 《華音啓蒙諺解》(1883)의 「귀」가 더 정확하다.

또한 현대 중국의 武漢·成都·揚州·長沙 지역에는 鍋를 ko로 발음하고,⁵⁹⁾ 江蘇省 丹陽 지역에는 kə로 발음하고 있어⁶⁰⁾ 開口化된 발음이 나타나고 있다. 《譯語類解》의 「고」와 「거」가 당시 開口化된 발음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10. 假攝

假攝字에 나타난 「或曰」의 내용은 중국 漢語 현대음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다음과 같다:

射罃矢箭전전: 或曰射罃箭전

[어원: 《廣韻》去禡 神夜切 神母 開口三等 射

入昔 食亦切 神母 開口三等 射]

《譯語類解》에서는 射의 左音을 喉塞韻尾의 「罃」로 표현하여 어원이 入聲字임을 나타내고 있다. 入聲字의 어원은 《廣韻》 昔韻 食亦切 神母

58) 王力, 《漢語語音史》,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5年, 504쪽.

59) 北大中文系語言學教研室編, 《漢語方音字彙》, 語文出版社, 2003, 40쪽.

60) 許寶華, (日)宮田一郎 主編, 《漢語方言大詞典》, 中華書局, 1999年, 6161쪽.

開口三等이고, 王力은 어음변천을 -iak>-ïek>-ïek>-ïək>-it>-i(윈)>ɿ(명칭-현대)로 擬音하였다.⁶¹⁾ 그러므로 《譯語類解》에서 표기한 右音 「시」는 현대 북경 백화음 ʂɿ의 이전음 ei의 표기음으로 간주할 수 있다.

「或曰射씨」의 어원은 《廣韻》去禡 神夜切 神母 開口三等에서 찾을 수 있다. 王力은 《廣韻》去禡 神母 開口三等的 어음변천을 -ia>-ia>-ie>ə로 擬音하였다.⁶²⁾ 「씨」는 현대 북경 문언음 ʂə의 표기로 판단된다. 1915년에 조선에서 간행된 崔南善의 《新字典》에 수록된 射의 한국 한자음 【샤】와 【석】⁶³⁾ 역시 射의 두 어음이 중국에 존재했을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준다. 《漢語方音字彙》에서도 현대 北京, 西安지역에서 射는 백화음 ʂɿ와 문언음 ʂə가 존재함을 기록하고 있다.⁶⁴⁾

11. 宕攝

宕攝字의 「俗音」·「或呼」·「俗呼」의 내용은 중국 明清음과 방언, 현대 漢語 文言音에서 근거자료를 찾을 수 있다.

脚값교자중즈: 脚或呼값

[어원: 《廣韻》入藥 居勺切 見母 開口三等 脚]

脚은 《譯語類解》 右音과 《老乞大諺解》 및 《朴通事諺解》(1677), 《華東正音通釋韻考》(1747)에서는 「교」로 표기하고, 《譯語類解》「脚或呼값」와 《三韻聲彙》(1751)·《奎章全韻》(1796)에는 「값」로 표기하며, 《華音啓蒙諺解》(1883)에는 「값」음으로 표기한다. 이 내용을 근거로 볼 때, 조선시대 중국어학습서에서 脚에 대한 표기음은 「교>값>값」로 변천

61) 王力, 《漢語語音史》,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5年, 507쪽.

62) 王力, 《漢語史稿》新1版, 中華書局, 1980年, 157쪽.

63) 崔南善, 朝鮮光文會編纂, 《新字典》一, 京城新文館, 1915년, 40쪽.

64) 北大中文系語言學教研室編, 《漢語方音字彙》, 語文出版社, 2003, 21쪽.

한다. 《廣韻》入藥 居勺切 見母 開口三等 글자 韻母의 한어어음변천은 -iok>-ɪok>-iak>-iau(원-현대)⁶⁵)이다. 즉 17세기 후반에 이미 -iau의 발음이 생성되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見母 細音의 聲母에는 큰 변화가 있었다. 先秦시기부터 明清시기까지 k-음을 유지하다가 현대에 들어서면서 tc-음으로 변화하는 과정⁶⁶)을 거친다. 중국 한어 kiau에서 tciau의 변천과정을 조선시대 중국어학습서에서 「갠>갠」로 표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譯語類解》 「或呼갠」는 명청시기의 「kiau」음을 표기한 것이다.

耳聾 聾城 聾郭 聾呼 聾: 郭俗呼聾

[어원: 《廣韻》入鐸 古博切 見母 合口一等 郭]

郭은 《譯語類解》 右音과 《華東正音通釋韻考》(1747) 및 《華音啓蒙諺解》(1883)에는 모두 「귀」음으로 표기하였다. 《廣韻》入鐸 古博切 見母 合口一等的 어음변천은 -uak>-uo(元)>-uo(명청-현대)⁶⁷)이었고, 「귀」는 明清시대에서 현대까지의 한어 발음 kuo를 표기한 것이다.

그러나 崔世珍의 《四聲通解》(1517)에서는 「고」로 표현하고 있으며, 이는 《譯語類解》 「俗呼고」의 「고」와 일치한다. 「俗呼고」의 표기음은 위의 「鍋귀고」에서 언급한 것처럼 元나라시기에 있었던 kuo 발음에 대한 표기일 수도 있고, 현대 중국의 武漢, 成都, 溫州, 長沙 등지에서의 발음 ko⁶⁸)에 대한 표기음일 수도 있다. 당시 민간에 통용되던 방언음으로 판단된다.

芍 聾 聾藥 聾藥: 芍俗音聾

[어원: 《廣韻》入藥 市若切 禪母 開口三等 芍]

65) 王力, 《漢語語音史》,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5年, 509쪽.

66) 王力, 《漢語語音史》,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5年, 495쪽.

67) 王力, 《漢語語音史》,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5年, 507쪽.

68) 北大中文系語言學教研室編, 《漢語方音字彙》, 語文出版社, 2003, 40쪽.

王力에 의하면 芍은 현대 북경에서 문언음 ɕuo와 백화음 ɕau를 가진다.⁶⁹⁾ 崔世珍의 《四聲通解》(1517)에서는 「쇼」로 표현하고 있으며, 《華東正音通釋韻考》(1747)·《三韻聲彙》(1751)·《奎章全韻》(1796)에는 「쑤」로 표기하며, 《華音啓蒙諺解》(1883)에는 「쇼」로 표기한다. 중국 한어의 舌尖音化는 王力에 의하면 15세기 이후에 완성되었고⁷⁰⁾, 宵韻 知照系の 洪音化는 明清시기에 완성되었다.⁷¹⁾ 그러나 《譯語類解》와 조선시대 중국어학습서에서는 ɕau 발음을 細音을 표기한 「쇼」로 표기하고 있다. 이미 洪音化된 음을 「쇼」로 표기하는 원인은 舌尖音에 대한 한국인의 청각적 인지내용에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譯語類解》의 右音 「쇼」는 북경 지역 백화음 ɕau에 해당하는 표기법이고, 「俗音쇼」의 「쇼」는 문언음 ɕuo에 해당하는 음으로 판단된다.

12. 梗攝

梗攝字의 「俗音」·「俗呼」의 내용은 중국 방언음과 현대음에서 근거자료를 찾을 수 있다.

續징지麻마마: 續俗音치

[어원: 《廣韻》入錫 則歷切 精母 開口四等 續]

續은 《譯語類解》의 右音과 《華東正音通釋韻考》(1747)·《三韻聲彙》(1751)·《奎章全韻》(1796)에는 모두 「지」로 표기되어 있다. 모두 명청시기 tsi나 현대의 tei에 대한 표기음으로 판단할 수 있다. 현대 중국 福建省 建甌지역에서 「tsi」로 발음되고 있어⁷²⁾ 어음변천과정에서의 존재를 증명하

69) 王力, 《漢語史稿》新1版, 中華書局, 1980年, 148, 150쪽.

70) 林慶勳·竺家寧, 《古音學入門》, 學生書局, 1987年, 130쪽.

71) 王力, 《漢語語音史》,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5年, 500쪽.

72) 北大中文系語言學教研室編, 《漢語方音字彙》, 語文出版社, 2003, 89쪽.

고 있다.

그렇다면 「俗音치」의 「치」는 어떤 어음을 표기한 것일까? 초성 「지」와 「치」의 차이는 무기음과 유기음의 차이가 크다. 현대 중국 長沙지역에서 績을 tci음으로 발음하고, 俗音으로 tc'i음이 존재하고 있다.⁷³⁾ 「俗音치」의 「치」는 당시 민간에 존재했던 tc'i의 표기음으로 판단된다.

請칭칭客칭켜: 客俗呼커

[어원: 《廣韻》入陌 苦格切 溪母 開口二等 客]

客은 《譯語類解》의 右音과 《華東正音通釋韻考》(1747)에서 「켜」로 표기된다. 《譯語類解》에서 《廣韻》屑韻 他結切 透母 開口四等 鐵이 「터」로 표기되고, 《集韻》屑韻 莫結切 明母 開口四等 箴이 「머」로 표기된다. 또한 《廣韻》葉韻 卽葉切 精母 開口三等 接이 「저」로 표기되는 등, 현대 한어에서 -ie로 발음되는 글자도 「켜」로 표기됨을 알 수 있다. 《廣韻》屑韻 開口四等の 어음변천은 -iet>-iaet>-iæ(원)>-ie(명청-현대)⁷⁴⁾이다. 《譯語類解》의 표기음에서 -ie가 「켜」로 표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대 북경지역에서 客은 문언음 k'ə발음 외에도 백화음 tc'ie가 존재한다.⁷⁵⁾ 「켜」는 明清시기 k'성모⁷⁶⁾의 k'ie의 표기음으로 판단된다.

俗呼 「커」의 경우, 《譯語類解》에서 《廣韻》歌韻 胡歌切 匣母 開口一等 荷를 「허」로 표기하는 것을 볼 때, 「커」는 중국 漢語 현대 문언음 k'ə에 대한 표기음으로 판단된다.

琥후후珀핑퍼: 珀俗音페

[어원: 《廣韻》入陌 普伯切 滂母 開口二等 珀]

73) 北大中文系語言學教研室編, 《漢語方音字彙》, 語文出版社, 2003, 89쪽.

74) 王力, 《漢語語音史》,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5年, 512쪽.

75) 北大中文系語言學教研室編, 《漢語方音字彙》, 語文出版社, 2003, 25쪽.

76) 王力, 《漢語語音史》,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5年, 495쪽.

珀은 《譯語類解》의 右音과 《老乞大諺解》 및 《朴通事諺解》(1677), 《華東正音通釋韻考》(1747)에서 「퍼」로 표기된다. 그러나 《華音啓蒙諺解》(1883)에는 「패」로 표기한다. 「퍼」와 「패」 모두 조선시대 중국어학습서에서 언급되었던 표기음임을 알 수 있다. 陌韻 唇音字 百柏伯迫拍魄白帛陌 등은 현대 한어에서 -o韻母로 발음된다. 《譯語類解》에서는 白가 「버」로 표기되고, 拍가 「퍼」로 표기되고 있다. 그러나 그 중 百柏拍白가 현대 중국 漢語 백화음에서 -ai로 읽혀지고 있다.⁷⁷⁾ 《譯語類解》의 「珀俗音패」와 《華音啓蒙諺解》(1883)의 표기음 「패」를 근거할 때, 珀도 당시에 p'o와 p'ai음이 존재하였고, 현대에는 p'o음이 상용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13. 曾攝

曾攝字의 「俗音」·「或呼」의 내용은 漢語 어음변천과 방언음에서 근거자료를 찾을 수 있다.

酒罇罇 증증: 甌俗音징

[어원: 《廣韻》去證 子孕切 精母 開口三等 甌]

甌은 《譯語類解》의 右音과 《老乞大諺解》 및 《朴通事諺解》(1677)에서 「증」으로 표기된다. 《廣韻》 證韻 開口三等的 知照系의 어음변천은 -iəŋ(선진-원)>-əŋ(명칭-현대)이고, 그 외의 글자 어음변천은 -iəŋ(선진-원)>-iŋ(명칭-현대)이다. 甌는 精母 細音字이지만, 현대 한어에서 tc-성모로 변하지 않고, ts-성모를 유지하고 洪音化 되어 tsəŋ으로 발음되고 있다.⁷⁸⁾ 《廣韻》 證韻 子孕切 開口三等的 知照系 이외의 글자는 한어 어음변천의 일반적인 규칙에 의하면 甌은 tsīəŋ(원)>tsiŋ(명칭)>tcieŋ(현대)으로 어음변천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甌은 知照系와 같이 tsīəŋ(원)>tsəŋ(명칭

77) 王力, 《漢語史稿》 新1版, 中華書局, 1980年, 149, 158쪽.

78) 王力, 《漢語語音史》,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5年, 491, 516쪽.

-현대)의 과정을 거쳤다.

甌의 《譯語類解》의 右音 「증」은 tsəŋ(명청-현대)에 대한 표기음이고, 「俗音징」은 廣韻 證韻 子孕切 開口三等的 知照系 이외 글자의 어음변천 규칙에 따른 tsij(명청)나 teij(현대)의 어음이 俗音으로 남아서, 이를 표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현대 중국의 陝西 北部와 陝西 綏德에서는 甌을 teij으로 발음하고 있어⁷⁹⁾, teij어음의 존재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다.

朋뽕퐁蛔커커: 朋或呼甥

[어원: 《廣韻》平登 步崩切 並母 開口一等 朋]

朋은 《譯語類解》의 右音에서 「퐁」으로 표기된다. 이는 《華東正音通釋韻考》(1747)의 표기음과 일치한다. 《譯語類解》에서는 p-은 초성 「ㅂ」으로 표기되고, f-는 초성 「ㅍ」으로 표기되고, p'는 초성 「ㅍ'」으로 표기된다. 예를 들면, 包는 「ㅂㅂ」로 표기되고, 肥는 「ㅍㅍ」로 표기되고, 葡는 「ㅍ」로 표기된다. 그리고 당시에 이미 존재하지 않던 全濁音 並母의 左音은 초성 「ㅂ」으로 표기하고, 全濁音 奉母의 左音은 초성 「뽕」으로 표기하고 있다. 사실 17세기 후반에는 全濁音이 이미 존재하지 않았으나 조선시대 편술자들은 左音에서 正音의 개념에 근거하여 全濁音을 표기한 것이다. 《譯語類解》의 左右音에는 「朋或呼甥」의 초성 「ㅂ」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朋은 현대 중국의 溫州에서 boŋ으로 발음되고, 蘇州에서 bən과 백화음 baŋ을 발음되는 것⁸⁰⁾을 볼 때 당시 全濁의 발음이 남아있었고, 《譯語類解》에서 민간에 남아있던 全濁音을 실제로 듣고 초성 「ㅂ」로 표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79) 許寶華, (日)宮田一郎 主編, 《漢語方言大詞典》, 中華書局, 1999年, 7298쪽.

80) 北大中文系語言學教研室編, 《漢語方音字彙》, 語文出版社, 2003, 332쪽.

14. 深攝

深攝字의 「俗呼」·「俗音」 내용은 又音에서 근거자료를 찾을 수 있다.

簪즌즌子중즈: 簪俗音잔

頂딩딩簪즌즌: 簪俗呼잔

金긴긴簪즌즌花화화: 簪俗音잔

[어원: 《廣韻》平覃 作含切 精母 開口一等 簪
平侵 側吟切 莊母 開口三等 簪]

平侵 側吟切 莊母 開口三等的 簪은 《譯語類解》의 右音과 《華東正音通釋韻考》(1747)에서 「즌」으로 표기되고, 平覃 作含切 精母 開口一等 簪은 《譯語類解》의 「簪俗音잔」과 《老乞大諺解》 및 《朴通事諺解》(1677), 《華東正音通釋韻考》(1747)에서 「잔」으로 표기된다. 그러므로 「俗音잔」·「俗呼잔」은 簪의 又音을 표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즌」은 명칭시기부터 현대까지의 어음인 tsən을 표기하고, 「잔」은 명칭시기부터 현대까지의 tʃən⁸¹⁾을 표기한 것이다. 1915년에 조선에서 간행된 崔南善의 《新字典》에 수록된 簪의 한국 한자음 【잠, 줌】⁸²⁾ 또한 簪의 두 어음이 중국에 존재했음을 나타낸다.

15. 咸攝

咸攝字의 「或呼」 내용은 두 가지 어원인 又音에서 근거자료를 찾을 수 있다.

81) 王力, 《漢語語音史》,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5年, 491쪽, 493쪽, 523쪽.

82) 崔南善, 朝鮮光文會編纂, 《新字典》 三, 京城新文館, 1915년, 28쪽.

蝴蝶呼蝶덩더兒會說：蝶或呼터

[어원: 《廣韻》入牀 他協切 透母 開口四等 蝴

《廣韻》入牀 徒協切 定母 開口四等 蝴]

蝶는 《廣韻》에서 이미 定母(仄)[어음변화: d->t-(송-현대)]와 透母 [어음변화: t'-(선진에서 현대까지)]⁸³⁾의 두 가지 어음이 존재했음을 나타내고 있다. 《廣韻》入牀 他協切 透母 開口四等の 蝴은 《譯語類解》의 「蝶或呼터」와 《老乞大諺解》 및 《朴通事諺解》(1677), 《華東正音通釋韻考》(1747)에서 「터」로 표기되고, 《廣韻》 牀韻 徒協切 定母 開口四等 蝴은 《譯語類解》의 右音과 《老乞大諺解》 및 《朴通事諺解》(1677)·《華東正音通釋韻考》(1747)·《華東正音通釋韻考》(1747)에서 모두 「더」로 표기된다. 그러므로 蝴의 두 가지 어음을 표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터」은 명칭시기부터 현대까지의 t'ie를 표기하고, 「더」는 명칭에서 현대까지의 tie음⁸⁴⁾을 표기한 것이다.

IV. 나오는 말

17세기 후반에 출간된 중국어학습서 《譯語類解》의 해설부분에 언급된 俗音과 或音은 당시 중국 현실에서 사용되던 한어의 다양한 어음정보를 포함하는 자료이다. 본 논문에서는 《譯語類解》 38개 해설부분에 언급된 俗音과 或音 내용을 중국 明清 이전음·明清음·又音·중국 방언음·한국 한자음·조선시대 중국어학습서를 근거로 분석하였고, 「俗音」·「俗呼」·「或曰」·「又」·일부 「或呼」의 내용이 明清 이전음, 明清음, 현대 漢語音, 방언음, 兩讀 又音を 포함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이는 17세기 중국 淸나라 수도였던 북경지역 실제 口語에 다양한 어음이 혼재하여 사용되고 있었음을 나

83) 王力, 《漢語語音史》,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5年, 492쪽.

84) 王力, 《漢語語音史》,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5年, 515쪽.

타낸다.

문헌(韻文·字典(韻書)·韻圖 등)을 근거로 중국 漢語어음변천사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일정한 한계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표음문자인 한글로 표기된 17세기 중국 어음 자료는 한어어음변천사의 실제 근거자료로 보충하고 활용할 수 있다. 본고의 분석을 통한 성과는 다음과 같다.

1. 중국 한어 어음변천사 내용의 증명자료를 확보하였다.

본고 III절 《譯語類解》 俗音과 或音 분석내용에는 한어 어음변천사 내용을 보충하는 자료가 다량 포함되어 있어, 표음문자를 통해 한어 어음변천내용을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鉅」의 「或呼쥬」와 같다.

2. 중국 문헌자료에는 나타나지 않는 17세기 다양한 실제 어음자료를 확보하였다. 예를 들면, 「鵠」의 「俗音부」와 같다.

3. 중국 한어 어음변천 시기 관련 자료로 확보하였다.

王力の 어음변천 擬音내용과 비교할 때, 擬音내용 시기보다 빠른 17세기 실제언어에서 이미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는 근거자료가 《譯語類解》에 나타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字	《譯語類解》		王力の 어음변천 판단		俗音, 或音 근거
	右音	俗音, 或音	右音	俗音, 或音	
氣	키[k'i]	치[tc'i]	明清	현대	현대음
鉅	규[k-]	쥬[tc-]	宋-明清	明清	현대음
軸	주[-u]	쥬[-əu]	현대	明清-현대	현대 漢語 백화음
肉	수[-u]	슈[-y]	현대	明清	현대 漢語 백화음
河	허[xə]	호[xɔ]	현대	宋-明清	

위의 내용에서 王力の 어음변천 판단보다 이른 17세기에 溪母 細音 氣의 어음변천이 k' > -tc로 진행되었고, 群母 仄聲 鉅의 어음변천이 k- > tc

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屋韻 軸와 肉은 이미 $y > -u$ 의 변화를 거쳐 右音에서 $-u$ 음이 상용음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歌韻 開口一等 匣母 河는 宋-明清시기 운모로 판단한 $-o$ 가 或音으로 표기되고, 현대음으로 판단한 a 가 17세기 상용음으로 표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辭筮츠酒질주: 辭字本不變音, 而俗呼츠」의 분석을 통해 辭詞祠 등이 $z > s > ts'$ 의 어음변천과정을 거쳤고, 17세기 중국에 이미 ts' -음이 상용되고 있었음도 파악할 수 있다.

4. 현대 多音字의 17세기 어음 자료를 확보하였다.

오늘날 多音字로 존재하는 일부 한자가 17세기에도 又音 발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과 같다.

字	《譯語類解》		俗音, 或音	
	右音	俗音, 或音	현대 백화음	현대 문언음
軸	주[-u]	주[-əu]	-əu	-u
肉	수[-u]	수[-əu]	-əu	-u
剥	반[-au]	보[-o]	-au	-o
篩	스[ɕɿ]	새[ɕai]	ɕɿ·ɕai	
血	훤[ɕye]	혀[ɕie]	ɕye·ɕie	
鳥	냐[niau]	뎨[tiau]	niau·tiau	
酵	자[teiau]	화[ɕiau]	teiau·ɕiau	
射	시[ɕi]	썩[ɕə]	ɕɿ·ɕə	
卵	뤼[luan]	란[lan]	luan·lan	
芍	쇼[ɕsau]	쇼[ɕsuo]	ɕsau	ɕsuo
客	켜[k'ie]	커[k'ə]	te'ie	k'ə
簪	즌[tsən]	잔[tɕən]	tsən·tɕən	
蝶	더[tie]	터[t'ie]	tie·t'ie	

<References>

1. Chen Pengnian. *Xin Jiao Zheng Qie Song Ben Guan Yun*. Taipei: Li Ming Cultural Enterprise Co., Ltd., 1999.
2. Choi, Namson. *Xin Dictionary*. Kyung-sung Sin-mun-gwan, 1915.
3. Department of Chinese Language & Culture of Peking University. *Chinese dialects corpus*. Beijing: Language & Culture Press, 2003.
4. Kang, Sin Hang. "The Phonological System of the tzu-yin in the Hwa-Um-Kye-Mong-On-Hai". *The Dong Bang Hak Chi* 24, (1980).
5. Lee, Eungheon. *Hwaeumgyemong*.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6. Lin Qingxun & Zhu Jianing. *Introduction To Ancient Phonetics*. Taipei: Studentbook, 1989.
7. Wang li. *Hanyushigao*. Beijing: Zhonghua Bookstore, 1980.
8. Wang li. *Hanyuyuyinshi*. Beijing: China Social Sciences Publishing House, 1985.
9. Yang Rencong. *A Comparative Study of Diachronic Phonemic Changes of Sinokorean and Mandarin*. Konkuk University, 1982.
10. Zhang Yushu. *Kang Xi Dictionary*. Shanghai: Shanghai Bookstore Publishing House, 1985.

<참고문헌>

1. 陳彭年 등 重修, 林尹 校訂, 《新校正切宋本廣韻》, 臺北: 黎明文化事業公司, 1999.
2. 崔南善, 朝鮮光文會編纂, 《新字典》, 京城新文館, 1915.

3. 北大中文系語言學教研室編, 《漢語方音字彙》, 北京: 語文出版社, 2003.
4. 姜信沆, 〈「華音啓夢諺解」內 子音의 音系〉, 《東方學志》 24권, 1980.
5. 李應憲, 《華音啓蒙》,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6. 林慶勳·竺家寧, 《古音學入門》, 台北: 臺灣學生書局, 1989.
7. 王力, 《漢語史稿》 新1版, 北京: 中華書局, 1980.
6. 王力, 《漢語語音史》,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5.
8. 楊人從, 《韓國漢字音과 中國北方音의 比較研究》, 建國大學校大學院 國語國文學科 박사학위논문, 1982.
10. 清) 張玉書等 編, 《康熙字典》, 上海: 上海書店出版社, 1985.

< Abstract >

The Nogeoldae, the Baktongsa and the Yeogeoyuhae are three books that were written at the end of the seventeenth century. These books have been widely used to study Chinese. The “the vulgar sound” and “the rest pronunciation” discussed in the explanatory part of the Yeogeoyuhae recorded a variety of Chinese pronunciations used at that time. In the history of the Chinese language, phonetic changes have provided important references. According to the analysis discussed this paper, “the vulgar sound” and “the rest pronunciation” in the Yeogeoyuhae have been included in the modern pronunciations (i.e., the vernacular pronunciation and the classical pronunciation), the pronunciations used in the Yuan Ming and Qing dynasties, the pronunciation preceding the Yuan dynasty, and the dialects. In addition, the etymology was different from that contained in the Guangyun. The Yeogeoyuhae’s right pronunciations recorded the usual pronunciations, but there were also many folk pronunciations. Among these pronunciations, some had already

been adopted as the modern pronunciations, some had disappeared except as part of the folk pronunciations, and some of them came from the dialects.

Key Words : 《譯語類解》(Yeogeoyuhae), 俗音(The vulgar sound), 조선시대 중국어학습서(Vocabulary book in the Joseon Dynasty), 한어어음변천(History of the Chinese phonology)

